

나의 독서일기 2_

자대복귀부터 백수생활 초입까지



비무장지대 GP에서 자대로 복귀하여 가장 먼저 다 읽은 책은 이규태의 『한국인의 의식 구조』(신원문화사)다. 1990년 4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2주에 걸쳐 읽었다. 자대에서 처음 읽기 시작한 책은 발자크의 『사촌 베뜨』(이진구 옮김, 삼성출판사)다. 난봉꾼은 난봉꾼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확인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필요했다. 삼일절에 책을 펼쳐 무려 넉 달 하고도 스무닷새를 들었다.

여기에는 세계문학전집의 한 권으로 나온 발자크 소설의 지루함과 2단 세로짜기 조판의 뻑뻑함을 무시할 수 없으나, 군대의 특수한 독서여건이 더 크게 작용했다. 앞서 말했

듯이 군 생활은 책 읽을 짬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시간이 나더라도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다. 아마도 1990년 삼일절 무렵은 내가 병장으로 진급한 시기인 듯싶다. 그러나 병장 계급장을 갖 단 병장 1호봉은 내무반에서 운신의 폭이 좁다. 여러 모로 조심해야 한다.

제대 두 달여를 앞두고 비로소 나는 내무반에서 독서의 자유를 얻는다. 7월말에서 8월초까지 책 세 권을 읽은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때는 주말 오후의 텔레비전을 보는 대열에서 빠져나와 TV와 멀리 떨어진 내무반 침상에서 편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한 눈 뜨고 꿈꾸는 사람』(샘터사)은 국회의장을 지낸 김재순 <샘터> 발행인이 <샘터> 뒤 표지에 썼던 짧은 글을 엮은 일종의 칼럼집이다.

루이제 린저의 『완전한 기쁨』(홍경호 옮김, 마당)과 이문열의 『금시조』(고려원)는 예상 외로



최 성 일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흡인력이 있었다. E. 쇠르만의 『빠빠라기』(김범경 옮김, 하서출판사)는 내가 카키색 군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다. 9월 하순 이틀간 이 책을 읽고 난 열흘 후, 나는 민간인이 되었다. 군역은 현역에서 풀려나 예비역에 편성되었다.

책과 관련하여 군복무 중 아주 불쾌한 일이 하나 있다. 사단 사령부에 휴양소라는 게 있는데 제대를 앞둔 군인들이 전역식을 앞두고 묵는 곳이다. 더러 군복무가 한창일 적에도 다녀올 기회가 있지만 차례가 한번 올까 말까다. 나는 한번 가봤다. 군대의 상급자는 ‘아랫것들’이 편하게 지내는 것을 눈뜨고 못 본다.

휴양소에서 하룻밤 재우지도 않으면서 정신교육을 시켰다. 좋게 말하면 휴양소에 근무하는 장교의 강연을 들었다. 나는 그가 정훈장교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데 그는 마빈 해리스의 『문화의 수수께끼』에 나올법한 토픽과 마르크 블로크의 『봉건사회』를 들먹이며 작대기 계급장의 병사들을 노골적으로 깔았다. ‘니들은 그런 책 제목이나 들어봤니?’

책세상 독서수첩

전역 열흘째 되는 날 '90서울도서전에 간 걸 보니, 사회에 복귀해 갈 곳이 마땅치 않고 할 일도 어지간히 없었던 모양이다. 그때는 도서전이 가을에 열렸고, 국제도서전이 아니었다. 개최장소 또한 서울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체조 경기장이었다. '90서울도서전에서 짹짹한 소독이 두 개나 있었다. 그 하나는 리영희



선생의 강연을 들은 거다. 내가 그날 서울도서전에 간 건은 ‘저자와의 대화마당’에 리영희 선생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도서출판 책세상의 독서수첩이다. 이 가외의 수확물은 “책읽기의 효과를 높여주는 작은 책”이라는 표지 문구에 걸맞게 나의 독서생활에 보탬이 되었다. ‘독서수첩을 내면서’의 한 구절은 내게 딱 들어맞는다. “바쁜 일상 중

에서도 책을 읽고 난 후의 소감을 글로 남겨 두면 하나의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을 뿐 아니라, 훗날까지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어줄 것이므로 이 독서수첩의 유용한 쓰임새를 기대한다.”

그리고는 ‘세계사를 만들어온 위대한 책 200권 목록’과 ‘한국의 고전 100선’ 목록이 이어진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와 대표작품’은 당연히 1989년까지만 있다. 1981년부터 2002년도까지 수상자 목록을 신문에서 오려 끼워 놓았다. ‘나의 독서계획’란을 가장 알차게 활용했다. ‘계획’을 ‘실천’으로 바꿔 복하기 전까지 읽은 책을 빼곡히 적어 넣었다.

넉 달간 매월 15권 안팎을 읽었다. 책 읽는 속도가 느린 나로서는 엄청나게 읽은 셈이다. 주로 색깔 있는 책을 읽었다. 그때 읽은 국내 소설로는 김영현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실천문학사), 윤정모의 『고삐』(풀빛), 정도상의 『친구는 멀리 갔어도』(풀빛), 김용성의 『큰 새는 나뭇가지에 앉지 않는다』(문학세계사), 김하기의 『완전한 만남』(창작과비평사), 차주옥의 『함께 가자 우리』(실천문학사) 등이 있고, 고리



키의 『어머니』(열린책들), 오스트로프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온누리), 체르니셰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남풍)와 같은 혁명적 러시아 소설이 있다.

1991년 1월엔 그 중에도 더 많이 읽어 22권(13종)을 읽었다. 권수와 종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林巨正)』(사계절) 때문이다. 10권짜리 한 질을 단숨에 읽어 치웠다. 그해 2월과 3월은 독서실천량이 푹 떨어진다. 그래도 『닥터 노먼 베클』(실천문학사) 덕분에 아쉬울 게 없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독서수첩에 독후감을 쓴 것은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의 장편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유재연 옮김, 1989) 달랑 한 권뿐이다. 먼저 몇 가지 사항을 적었다. 우정과 사랑을 위하여 갖춰야 할 요소로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1. 티 없는 마음. 2. 성실한 혼. 3. 인간의 권리에 대한 진보적인 사고방식. 4.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마음.

무분별한 행위가 용납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1. 화가 나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 2. 인간이 자유를 억압당해 반항적으로 행동할 때. “기본적인 책, 기본적인 인간, 기본적인 업무”라는 글귀도 보인다. 소설에서 문장 하나를 인용했다. “저와 같은 인간(=특별한 인간, 라흐메토프)은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운명과 결합시킨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독후감이 이어진다.

“시간이 없으면 3장 29절의 「특별한 인간」만 읽어도 되겠다. 라흐메토프는 엄격주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동료들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비판도 그가 사심이 없고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이기에 누구도 그의 질책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 우리의 앞길이 혁명적 정세이고 혁명적 인간을 요구할 때 라흐메토프다운 사람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만 우리의 당위는 나약함, 가족주의, 종파주의 등의 때를 벗고 드넓은 정의와 평화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대답은 실천이다.”

물 만난(?) 복학생

나의 대학입학 점수는 앞에서부터 세는 게 빠르지만 졸업 석차는 뒤에서부터 세는 게 빠르다. 그런데 읽고 써야 하는 강의가 많았더라면, 졸업 성적 역시 앞에서부터 세는 게 더 빨랐을 것도 같다. 나는 대학에서 수강한 두 과목의 성적에 대해 은근한 자부심이 있다. ‘타살 정국’의 투쟁 열기가 가라앉은 3학년 2학기, 복학생의 본분을 찾아 장학금을 목표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한 과목의 점수가 낮아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대학 4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

단과대 교양필수 선택과목인 사회사상사에서 A°를 받았다. A°를 받은 수강생이 드물어 그것에 버금가는 점수였다. 사회사상사의 학점이 잦던 까닭은 담당 교수가 독서를 요구해서다. 책 2권을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이 과제였다. 나는 물을 만난 물고기 같았지만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이 훌륭한 교수법의 여자 교수를 <출판저널> 지면에서 다시 보게 된다. 동료 기자가 저자 인터뷰를 한 교수의 얼굴이 낮익다 싶었는데 바로 그 교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교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지난해엔 이 교수가 엮은이로 참여한 책에서 여교수가 쓴 머

리글을 읽었으나 영 아니었다. 아무튼 예전에 제출했던 리포트의 일부를 여기 옮긴다.

“작년 이맘때쯤 『두 사람』이란 제목의 책을 읽고 매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2년 3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직후라 텅빈 머리를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어나갔지만 신통한 것은 별로 발견하지 못한 때였다. 『두 사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동전기이다. 사회주의의 위기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이 충분한 현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광고문안에 이끌려 읽게 되었는데, 나 자신이 얼마나 두 사람에 대해 무지했었나를 느낄 수 있었다. 굳이 ‘우정에 관한 모든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했다’는 레닌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교분은 참다운 우정의 본보기라 하겠다.”

시작은 이렇지만 내가 리포트를 쓰기 위해 읽은 두 권 가운데 한 권은 에드먼드 윌슨의 『핀란드 역까지』(김정민·정승진 옮김, 실천문화사)다. “이 책은 프랑스혁명에서 러시아혁명까지의 혁명의 시대를 각 시기의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1부에 언급하고 있는 프랑스의 역사가들은, 내가 처음 이름을 접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2·3부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저자 나름의 주관적인 견해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목사의 딸들』

중·고등학교 시절 글을 잘 쓴다는 소릴 듣지 못했다. 책 읽고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줄은 미처 몰랐다.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글쓰기 선수가 있었다. 때마다 교무주임이 우리 교실까지 와서 그 친구에게 글쓰기를 주문했다. 덕분에 나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은 편했지만, 아주 조금 샘이 나기도 했다. 얼마나 잘 쓰기에?

나는 그 친구가 쓴 글을 한번도 읽은 적이 없다. 우리학교 글쓰기 선수는 지금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 궁금하다.

나는 4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글 쓰는 재능을 인정받게 된다. 졸업을 목전에 두고서도 나는 몇 가지 이유로 취업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 우선, 그해 봄 세상을 떠난 둘째 형을 잃은 후유증을 1년 가까이 앓았다. 또 나를 받아줄 일터가 없을 거라고 단정했다. 사실, 직장을 구할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고 보는 게 맞다.

전공 선택과목인 비평론은 내가 바라는 그런 강의였다.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국문학이자 문학평론가가 강의를 맡았는데 그는 늘 우리들의 무지를 나무랐다. 하여 내가 오기를 발동했는지도 모르겠다. 영국 출신의 작가 D. H. 로렌스의 중편소설 『목사의 딸들』에 관한 평문을 영문학자 F. R. 리비스의 미번역 저서까지 들이대며 열심히 작성했다. 결과는 A+로 나왔고, 학과 소식지에 실린 내 글은 이듬해 ‘족보’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내가 쓴 『목사의 딸들』에 나타난 부르주아적 결혼이라는



글의 마무리다.

“『목사의 딸들』에서도 광산 노동자인 듀란트가 점진적 사회주의자의 모임인 페이비언 그룹의 사상을 견지하는 것도 로렌스가 계급적대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적 사랑에 근접한 루이지와 듀란트가 결혼 후에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다는 결말은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없이는 순수한 사랑조차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로렌스의 진보적 사상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창작과비평〉

〈경향신문〉 1면에 연재중인 독서칼럼 ‘책읽기 365’의 2007년 7월 5일자는 〈창작과비평〉을 다뤘다. 7월 5일자 ‘책읽기 365’ 칼럼의 필자는 대학에 들어간 1989년부터 〈창작과비평〉을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나도 한때는 계간지 〈창작과비평〉을 열심히 읽었다. 1990년대 초반의 것은 나오는 대로 열독했다. 1988년 여름 복간 2호까지만 읽고 입대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다. 군복무기간동안 나온 과월호를 다 구했지만, 시의성에 좌우되는 잡지의 속성 탓인지 과월호는 띄엄띄엄 보았다.

‘책읽기 365’ 칼럼의 필자는 〈창작과비평〉이 “시대정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박하지 않은 글쓰기가 좋았다”고 한다. 나는 이제 〈창작과비평〉을 구독하지 않는다. 정기구독을 끊기 전에도 집으로 배달된 잡지를 거의 읽지 않았다. 나는 이 잡지의 귀족주의가 싫다. 그런데 나는 이 잡지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1990년대 초중반, 잡지의 한 귀퉁이를 차지한 독자투고에 대한 사례비는 내가

글을 써서 처음 번 돈이다. 백수인 내게 그것은 꽤 큰 액수였다. 잡지 편집자는 ‘편집자의 의도와 잡지’라는 내가 붙인 제목을 그대로 실어주었다.

“○○○씨의 영화평은 또다시 논쟁적이다. 필자와 편집부가 지난 호 글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준다. 필자는 한국영화의 자리매김을 위해 공과의 평가에 엄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글에는 전제가 되어야 할 한국영화에 대한 애정이 희박하다. 한국영화는 언제까지 자리매김만 당하는 천덕꾸러기일 것인가? 필자가 허물로 지적한 판소리 자막도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흠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판소리는 이미 살아있는 ‘화석’이 아닐까.

‘짧은 서평’은 실패한 기획이다. 서평을 관심 있게 보아왔기에 서평이 강화되고, 더구나 한 권씩 따로 지면을 할애한다는 것이 아주 반가웠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뼈격이더니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짧다는 것은 길이의 문제만도 아니다. 핵심을 간취하지 못한 글은 지루할 뿐이다. 쉬우면서 다루는 책의 요점을 명확히 짚는 서평이 아쉽다.

편집자의 의도를 읽혀서, 관찰시키는 것이 좋은 잡지라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나을 게 없다. 신인으로 추천되는 시인들은 대체로 한 가지 목소리다. 잔망스런 조숙, 적당한 향토색(사투리 구사), 일정한 화폭 안에 갇힘.” (㉠)